『메가트렌드 유럽(*Megatrends Europe*)』 요약

2006. 6

◇ 본 보고서는 유럽의 트렌드와 커뮤니케이션 문제에 대해 기업과 정부에 컨설트를 해주는 덱스터(Dexter)사의 책임자인 에지에즈 베이커스(Adjiedj Bakas)가 21세기 미래 유럽의 모습에 관해 전망한 저서

◇ 새로운 슈퍼 파워로서 중국의 등장 그리고 서방 사회와 무슬림 근본주의자들 간의 계속되는 갈등이라는 2 가지의 세계적 추세 하에서 향후 유럽인들의 삶을 급격하게 변화시킬 7 가지의 트렌드를 제시하고 정치・경제・사회 변화를 전망

< 목 차 >

Ⅰ. 서 론 ····· 1

1. 세계 추세 1: 새경제 질서의 도래 ····· 1
2. 세계 추세 2: 이슬람교와 서구 사회간의 갈등 지속 ····· 3

Ⅱ. 유럽의 7가지 메가트렌드 ····· 6

1. 유럽인구의 감소와 다인종화 ····· 6
2. 유럽인의 新집단화 현상 ····· 11
3. 전통에서 기술, 종교, 그리고 환경혁명까지 ····· 14
4. 전면으로 부상한 시민 ····· 22
5. 안전에 대한 유럽의 새로운 시각 ····· 25
6. 아르헨티나 모델에서 신유럽 모델로 ····· 27
7. 유럽의 문화적 쇄신을 위하여 ····· 31

Ⅲ. 결 론 ····· 34

Ⅰ. 서 론

※ 유럽의 변화는 범세계적 추세와 유럽 내부의 추세 간의 역동적인 상호 작용 속에 이루어지고 있음

1. 세계 추세 1: 새 경제 질서의 도래*(new economic world order)*

□ **내전 종식 이후 미국만이 유일 초강대국**으로 남게 됨.

○ 경제적, 문화적, 군사적 우월성을 바탕으로 세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

○ 그러나 미국은 21세기 초부터 국제 무대에서 서서히 입지를 잃고 있음. **잠자는 거인 중국이 서서히 기지개**를 켜고 있기 때문임.

□ 일본은 정치, 군사력의 부족으로 초강대국의 반열에 오르지 못함.

□ 앞으로 세계는 다음 **여덟 종류의 나라 내지 단체로 구분**될 것임.

① **초강대국**(superpowers): 미국이외에 일본,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 5개국이 추가

- 골드만 삭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50년 이내에 중국은 미국을, 인도는 일본을 경제적으로 추월.

- 중국은 군사력도 마음 먹기에 따라 미국을 쉽게 능가.

- 인도는 파키스탄과의 오랜 교전으로 이미 아시아에서는 최고 군사력을 갖추고 있음.

② **호랑이 나라**(tigers): 국토가 좁다는 사실만 제외하고는 어느 것 하나 초 강대국에 뒤지지 않는 나라들을 지칭

('06.6.28, 메가트렌드 유럽 요약 자료, 정책기획위원회)

- 싱가포르, 칠레, 베트남, 한국, 태국, 터키, 남 아프리카, 폴란드, 캐나다 등

③ **잠자고 있는 나라**(dormant countries): 인구 노화와 정치, 경제적 안정으로 더 이상의발전을 찾아 볼 수 없는 나라들을 말함

-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 우루과이, 프랑스, 스웨덴, 이탈리아 등

④ **원자재 나라**(raw material countries): 석유, 천연가스, 철광석 또는 석탄이 풍부한 나라

- 쿠웨이트,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리비아 등

⑤ **빈곤국가**(poor countries): 천연 자원의 부재와 고질적인 기근, 전쟁으로 고통 받는 국가들.

- 차드, 방글라데시, 미얀마, 콩고, 소말리아, 수단 등

⑥ **화난 국가**(angry countries): 열등의식과 우월의식이 뒤엉켜 있는 독재 정권이라는 것임. 강한 국수주의적인 면모를 띠고 있는 국가들

-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북한 등

⑦ **다국적 조직**(multinational organizations): 한 나라 또는 여러 나라에서 동시에 설립되어서 세계 각국으로 뻗어나간 기업 또는 기관

- IBM이나 Shell, 국제회계법인 KPMG, 국제 비정부기구 NGO가 대표적인 예임. 다국적 조직의 이사회는 때때로 정부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도 하고 세계 경제를 움직임.

⑧ **다국적 그룹**(multinational tirbes): 국가라는 울타리를 넘어 활동하고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잘 수용하면서 그룹 고유의 영역을 형성하고 문화를 보유

- 유대인, 중국인 등의 해외거주자 그룹, 동성애자의 세계 네트워크 등

【목차로가기】

2. 세계 추세 2: 이슬람과 서구 사회 간의 갈등 지속

(the struggle between the West and Islam)

※ **이슬람교과 서부 사회 간의 냉전은 다음 네 경우 측면**을 띠고 있음.

1 권력 투쟁의 3각 구도*(A century of power struggle)*

○ 양 진영의 권력 투쟁은 21세기 내내 지속될 것이고, 다음 세기에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낳을 것임.

1. 승리한 이슬람이 세계를 제패
2. 승리한 그리스도교가 현 권력을 유지
3. 그리스도교와 이슬람이 손잡고 무신론자 중국에 대적
4. 그리스도교와 중국이 연합하여 이슬람교를 격퇴

○ 위에서 네 번째가 가능성이 가장 많음. 중국과 그리스도교국은 가치관이 비슷하고 이슬람 국가의 석유를 탐내는 등 서로의 공동 이익을 위해서 동맹할 가능성이 충분함.

○ 계속되는 분쟁으로 이슬람교도와 비이슬람교도들이 더 이상 공존할 수 없게 되면, 사회 평화와 안녕 유지를 위해 유럽 정부들은 소수민족으로 유럽 전역에 흩어져 사는 이슬람교도들을 한데 모아 비이슬람교도들과 분리시킬 수도 있을 것임.

○ 이 같은 강제 이주가 행해지지 않는다면, 이슬람교도들은 세상을 등지고 다른 문화를 배척한 채 인터넷 등을 통해서 자신들만의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할 것임.

2 대테러 전쟁*(Defeating terrorism)*

○ 설립 후 15년 이내에 사라지는 테러집단은 매우 많음.

○ 예외적으로, 알카이다는 전무후무한 끈질긴 생명력을 바탕으로 한 매우 강력한 테러집단임.

○ 알카이다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은 15억에 달하는 무슬림의 추앙을 받으면서 이슬람교의 유토피아 구축을 기도하고 있음.

○ 한편으로 알카이다의 건재이유가 종교가 아닌 테러리스트에 대한 금전적 보상에 있다는 의구심이 일고 있음.

○ 테러리스트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이렇게 계속 되는 한, 이슬람 테러집단은 전 세계적으로 더욱이 확산될 것임.

3 터키의 이슬람 세계 주도 가능성*(Turkey becomes the leader of the Lslamic world)*

○ 이슬람 세계에서 터키는 지도자가 될 자질을 갖추었음.

○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오스만 제국의 지도력을 물려받은 터키 민주주의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터키는 투르크메니스탄과 같은 터키어를 사용하는 나라와 재외 터키인들과 공고히 다져진 결속력을 자랑하며 다른 이슬람국가와 차별성을 보여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키는 자본력이 부실하기도 하고 예루살렘, 메카, 메디나와 같은 이슬람 성지(聖地)를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슬람 세계를 주도하기는 어려움.

4 유라비아와 신유럽의 등장*(Eurabia and new Europe)*

○ 유라비아의 등장

- 서유럽과 마그레브가 융합하여 유라비아가 생기고 구(舊)동유럽은 비이슬람적인 신유럽으로 부활함.

- 21세기 동안에 서유럽 전 국민은 이슬람으로 개종.

- 소수 영향력 있는 이슬람교 젊은이들이 서유럽 경제와 문화의 주춧돌 역할을 함.

- 이슬람교도들의 믿음은 매우 신실해서 유럽 민족주의 사상이나 그리스도교는 이에 절대 버금가지 못함.

- 이슬람교의 영향으로 여자들은 더 이상 반팔 소매 차림으로 거리를 다닐 수 없게 됨.

- 언론의 자유라는 명목 아래 이슬람교 지도자들은 공공연히 반유대주의를 부추기고 구(舊)유럽인을 서슴없이 비난함.

- 프랑스를 제외한 서유럽은 별무리 없이 이슬람교에 흡수될 것임. 서유럽이 북아프리카에 흡수됨으로써 유라비아 탄생이 기정사실화 될 것임.

○ 신유럽의 형성:

- 중동부 유럽에서는 신유럽이 형성됨.

- 그 역사적 기반은 오스트리아-헝가리 이중제국임.

- 이때 독일은 통일되기 전으로 돌아가서 서독일은 유라비아에, 동독일은 신유럽에 속하게 됨.

- 동유럽이 서유럽에 비해 발전이 더디고 노쇠한 것은 사실이지만, 서유럽에서 탈출한 이주민들이 동유럽 발전에 큰 원동력이 될 것임. 게다가, 해외로 이주한 동유럽인들과 유대를 돈독히 한다면 국가적 차원에서 큰 득이 될 것임.

○ 이대로 된다면, 기존의 유럽연합은 곧 해체될 것임. 서유럽은 반드시 정부형태가 아니더라도 북아프리카, 터키와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으로 결탁할 것임.

- 이에 맞서, 중동부유럽은 베를린과 비엔나를 거점으로, 다방면으로 연합할 것임.

【목차로가기】

Ⅱ. 유럽의 7가지 메가트렌드

【Megatrend 1】 유럽인구의 감소와 다인종화
(The European Population shrinks and takes on new colours)

□ 유럽인구는 감소하고 있음.

□ 유럽인구는 점차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었음.

□ 유럽을 다인종화되고 있음.

- 이민과 국제결혼, 소수 인종 관광객들의 방문 등으로 유럽 인종은 매우 다양해 지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은 이민억제 정책을 펴고 있다.

□ 유럽연합 통계청은 향후 유럽에 대해 세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함.

○ 첫 번째 시나리오는 집단이민으로 유럽인구가 급격히 증가한다는 것임. 하지만, 이민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유럽으로서는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함.

○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유럽여성 출산이 장려되기만 한다면 유럽인구수가 적정선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음.

○ 가장 가능성 높은 세 번째 시나리오에 따르면 연 출산율이 최저 출산율인 2.1을 밑돈다면 유럽인구는 23퍼센트 내지 많게는 40 퍼센트까지 줄어들 것임. 사실, 유럽 현재 상황이 그러함. 유럽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인구감소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리 나쁘다고는 할 수 없음.

○ 인구는 다음 세 요소에 의해 변함. 출산율, 사망률, 이주가 그것임. 유럽여성의 출산율은 1.37으로 세계 최저이며 앞으로 더 낮아질 것임.

('06.6.28, 메가트렌드 유럽 요약 자료, 정책기획위원회)

○ **출산율**: 네덜란드와 프랑스를 제외한 유럽 전체 출산율은 평균 1.2으로 매우 낮음. 따라서 세계인구에서 유럽인의 점유율은 점차 떨어져서 2050년에는 7%에 지나지 않을 것임.

- 유럽인구의 감소율은 나라마다 차이가 남. 이탈리아와 폴란드는 이미 인구 감소 국면에 접어들었음.

○ **사망률**: 인간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유럽은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대륙이 되었음. 유럽인 평균나이는 2003년 기준 37.7세임.

- 향후 50년에는 동남부유럽의 평균나이는 50세, 북서부유럽은 45세가 될 것임.

○ **이주**: 21세기 유럽에서는 민족성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영국을 중심으로 각국 유럽에서는 백인이 비도시 지역으로 빠져나가고, 다양한 인종의 이민자들이 도시를 꽉 메우는 등 인구지각변동을 겪고 있음. 인구감소와 대거 유입된 이민자들로 유럽은 변할 것임.

□ **유럽에서 인구감소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주거(Housing)**:

- 인구밀도의 조밀화가 이루어지고 공동화 현상으로 도시는 자연휴양지로 변모할 것임.

- 도시인구의 농촌유입으로 농촌의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전될 것임.

- 인구가 감소됨에 따라서, 환경과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잘 보존된다는 장점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소수의 인구가 정부 운용에 필요한 세금을 감당하기엔 매우 어려움.

- 농촌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 유럽 정부가 지원한 보조금도 궁극적으로는 문제 해결을 하지 못했음.

- 많은 사람들이 떠난 도시는 옛 건축양식을 복원하는 등의 도시재정비를 통해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갖춘 관광도시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음.

- 이렇게 되면 지역 주민들은 외국 관광객들에 대한 경계심을 늦출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가 부활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임.
-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공동화된 도시를 관광지역으로 탈바꿈 시킴으로써 그 도시를 부활 시키는 데 성공한 대표적인 예임.
- 부유한 아시아인들도 유럽의 전원휴양지를 구매해서 그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게 됨.
- 서유럽 노인들은 물가가 저렴한 동유럽국가에 와 집단으로 기거하고 있음. 특히, 노인 복지시설을 잘 갖춘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에 정착하는 유럽 노인들이 많음. 이제 상류층 노인뿐만 아니라 터키 같은 동유럽에서 인생의 황혼기를 만끽하는 서민층 노인이 점차 늘고 있음.

○ **경제기반(Infrastructure)**:

- 국민 1인당 부담 비용이 늘어남에 따라 사회 인프라 및 전기, 배수의 사용량이 대폭 줌.
- 적은 수의 사회성원이 더 많은 수입으로 농촌 경제기반을 마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유럽인들은 과거에 비해서 일을 덜 함.
- 현재 대다수 유럽도시는 자가용 승용차 억제 정책을 펴고 있음. 하지만 주차 시설 부족과 맞물려 이 정책은 매우 바쁜 도시 맞벌이 부부들을 농촌으로 내몰 것임. 농촌은 곧 도시 생활 패턴의 영향으로 곧 도시화가 될 것임.
- 맞벌이 부부의 호응으로 값싼 중국산과 인도산 자동차가 유럽 도로를 가득 메울 것임.

○ **일자리(Employment)**:

- 인구 고령화로 젊은이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손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음.

('06.6.28, 메가트렌드 유럽 요약 자료, 정책기획위원회)

- 노인 복지 사업, 관광산업, 오락산업이 수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지만, 일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많지 않음.

- 따라서, 로봇, 잘 훈련된 동물, 컴퓨터가 부족한 노동인구 몫을 단단히 해 낼 것으로 기대됨.

○ **의료관광사업(Care tourism)**

- 의학 기술의 발전으로 중장년층은 질병에 고통 받지 않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철저한 건강관리를 함.

- 더 저렴한 비용으로 더 나은 치료를 받기 위해 물가가 저렴한 두바이, 터키, 동유럽 등지로 의료 관광을 떠나는 유럽 노인 수는 점차 늘어날 것임.

  ▪ 여기에는 이슬람교가 지배하는 서유럽을 탈출하려는 유럽 노년층의 속뜻이 숨어 있음. 또한 오락산업이 전례 없이 성황을 이룰 것이다.

○ **자금조달(Financing):**

- 앞으로는 노인 생활양식, 노인 생계비, 그에 관한 정책이 정치 사회적으로 중요한 안건으로 떠오를 것임.

- 선진 유럽의 연금제도는 다음 세대의 숫자 감소로 재정난에 봉착해 있음. 영국을 예로 들어보면, 영국 국민은 노후를 위한 저축을 소홀히 해왔으며 연금도 30년 후면 30% 정도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 세금과 의료보험료 인상, 저축의 의무화, 퇴직 연령의 상향 조정이 이에 대한 대책으로 거론되고 있음.

-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에서는 퇴직 연령을 올리려는 정부 대책에 대항하는 노동조합이 많아지고 있음.

  ▪ 작년 말 독일 정부는 연금 액수를 이미 낮춘 바 있음. 산유국인 노르웨이도 연금 고갈을 일찌감치 예상하고 37년 전에 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62살에서 67으로 상향 조절하였음.

○ **복지국가의 위상:**

- 2004년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유럽 6개 복지국가의 위상이 다음과 같이 달라짐.

. 연금이 낮아짐에 따라 연금인구와 노동 인구간의 수입 불균형이 심해지고, 연금수령자의 빈곤화가 심화될 확률이 높아짐.

. 2010년부터 유럽연합국가는 정년 연령을 높음으로써 수입 불균형과 빈곤을 억제하게 됨.

. 연금축소정책 덕택에 복지자금 소통이 원활해 질 수 있지만 결국에는 수입 불균형과 빈곤을 초래할 것임.

. 북유럽 고용 증대 방침은 복지자금을 계속 대면서 동시에 수입 불균형과 빈곤 발생을 억제할 것임.

- 전 유럽은 비싼 복지비용과 개인연금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음. 노동력 증대, 퇴직연령의 상향 조정, 여성일자리 창출이 이에 대한 해답으로 제시되고 있다.

- 퇴직 연령 근로자들이 계속해서 노동시장에 머물게 됨으로써 후에 높은 연금을 받게 됨은 물론 자신들의 권리를 신장시킴.

- 기존 유럽 복지국가는 아래 다섯 종류로 나뉠 수 있음.

. 북유럽의 사회보장제도는 여성의 노동현장 투입과 연금지급 개시 연령의 상향 조정을 목표로 삼고 있음.

. 영국계 유럽국가는 극빈층을 위한 사회복지제도를 잘 갖추고 있음.

. 구(舊)동유럽국가들의 사회복지는 아직도 매우 미미함.

. 지중해유럽국가는 상대적으로 자금사정이 좋은 연금체계를 확립하고 있음.

. 유럽내륙국은 노동자에게 유리한 노동법을 제정하였음.

【목차로가기】

【Megatrend 2】 유럽인의 新집단화 현상(*New Tribalization*)

□ 용광로가 아닌 샐러드 보울(*Not a "melting pot" but a "salad bowl"*)

○ 유럽에는 같은 문화, 종교, 생활양식을 지닌 집단들이 속속들이 출현하고 있음. 이를테면, 동성애집단, 전(前) 유럽식민지국민집단, 해외이주민집단이 있음.

○ 집단의 수와 규모는 점점 커질 것임.

○ 이들 집단은 정치적, 경제적으로는 서로 적수일지 있지만, 같은 이익을 위해서 쉽게 뭉치기도 함.

○ 이들 집단이 유럽 주류와 뚜렷하게 구별되는 점은 어느 한곳에만 머무르지 않고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한다는 것임.

○ 미국연방정부 밑에 각 주정부가 존재하듯이 유럽 각국 정부는 거대한 유럽 정부 산하 기관이 될 것임. 유럽연합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힘이 커지고, 대사역할을 수행할 유럽통합대표가 선출된다면, 유럽 주류와 다양한 집단의 융화에 도움이 될 것임.

□ 글로컬리제이션(Glocalization=Globalization+Localization)

○ 국경 철폐, 범(凡)유럽법률 제정 등의 유럽통합정책은 정체성의 결여와 소외감이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음.

○ 유럽의 세계화 이면에 지역주의가 고개를 들면서 국수주의가 사라지는 대신 글로컬리제이션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부활하였음.

○ 이미 실현된 국제화와 함께, 지역, 지방, 개인 정체성을 재평가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장차 우리는 세계 시민으로서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를 움직일 것임.

('06.6.28, 메가트렌드 유럽 요약 자료, 정책기획위원회)

□ 노년층 생활의 변화

○ 플로리다제이션(Floridazation)이나 이피(YEEPIE)같은 신조어를 통해서 유럽 노년층 생활 공간의 변화를 엿볼 수 있음.

○ 65세 이상 은퇴자들이 플로리다 주로 이주하는 것을 가리켜서 소위 플로리다제이션 이라 하고,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태어난 유럽 베이비붐 세대를 이피라고 부름.

- 이피(YEEPIE)는 Young Energetic Elderly People Into Everything의 줄임말로 편안한 생활을 영위하다 은퇴 후에는 무리를 지어서 남유럽국가나 멀리는 남아프리카로 이주해 넉넉하고 활기찬 여생을 보냄.

○ 이런 유럽노인들의 생활양식은 파트타임 생활(part-time living)과 최고급 생활(five-star living)로 집약적으로 표현될 수 있음.

- 다시 말하면, 파트타임 생활은 유럽 노인들이 서유럽에서 물가가 저렴한 동유럽으로 가서 휴가를 즐긴다는 뜻음. 그리고, 주중에는 도심 한 복판의 호화로운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주말이면 시골 별장으로 가서 자연을 즐기므로, 그들의 생활양식을 최고급 생활이라 할 수 있음.

- 사람들이 동시에 두 공간에서 살다 보니 쇼핑 습관도 대폭 바뀜. 주말마다 쇼핑해서 주중 먹거리를 마련하는 대신 새로 등장한 다국적 슈퍼를 통해서 어느 나라를 가든 자신이 평소에 즐겨 먹던 음식을 계속해서 구입할 수 있음.

○ 구(舊)동유럽국가의 부동산 중개업도 성황을 이룸. 연금고갈이나 퇴직연령상향조절정책 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서유럽 노인들의 동유럽으로의 이주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임.

- 특히, 양쪽 부부 모두 연금 수혜자 가구는 재정적으로 동유럽의 이주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음.

('06.6.28, 메가트렌드 유럽 요약 자료, 정책기획위원회)

○ 늘어나는 노인인구를 겨냥해서 많은 식품 제조업체는 기존의 파스텔톤이 아닌 밝은 단색으로 포장지 색을 바꾸고 있음.

- 또한, 힘없는 노인들이 쉽게 포장을 뜯을 수 있도록 병, 캔류 등이 새롭게 제작되고 있다. 치아로 과자봉투를 뜯을 수 없는 노인들 덕분에 병따개, 통조림 따개, 스크루드라이버, 가위 등의 용품 매출이 늘고 있음.

○ 유럽노인들의 해외 이주가 보편화 됨에 따라 저가항공편의 인기는 앞으로 계속 될 것임.

□ **교통의 변화***(Intersections)*

○ 유비쿼터스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원활한 통근을 위해 더 많은 교통시설이 필요함. 고속열차의 등장으로 시골과 도시에 있는 두 집을 쉽게 오갈 수 있게 되었음.

- 점차 많은 사람들이 버스로 이동할 것이고, 다양한 종류의 택시, 렌트카, 카풀이 더 활성화 될 전망임. 더욱이 끝이 보이지 않은 노인단체 관광버스 행렬로 더욱이 유럽 도로는 한가해 질 틈이 없을 것임.

□ **주거 공간의 변화***(Building)*

○ 이론적으로는 인구감소로 개인 당 차지하는 공간이 더 넓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도시민들은 번잡한 도심에서 서로 옹기종기 모여 거주함.

○ 다양한 편의시설과 수많은 상점들이 즐비한 도시에서 직접 거리에 쏟아져 나와 쇼핑을 하기도 하고 박물관, 노래방 등에서 오락거리를 찾음.

○ 하층민들은 자의든 타의든 도시를 떠나게 되고, 공동화된 도시들은 재개발을 거쳐서 새 삶을 얻게 됨.

【목차로가기】

【Megatrend 3】 전통에서 기술, 종교, 그리고 환경 혁명까지
(From Traditions to Technological Spiritual and Enviornmental Revolution)

□ 혁명적인 과학기술의 발전: 기술의 기적

○ 과학기술로 우리의 삶은 많이 변했다. 미래 기술의 예는 다음과 같음.

- 이른바 RFID-칩이 큰 기대를 받고 있음. 자동차가 고장나면 자동차에 장착된 컴퓨터가 이를 감지해서 수리소에 연락을 취함. 게다가, 컴퓨터는 수리소로 가는 길을 안내하고, 집에 타고 갈 콜택시를 부른다.

- 가사일은 곧 도모티카(domotica)라는 가정용 컴퓨터가 일괄적으로 처리하게 됨.

- 가정용 컴퓨터는 슈퍼에서 필요한 음식을 주문해 배달시킴. 또한 주인의 생활패턴에 맞춰서 시중도 들게 됨.
  - ▪ 예를 들어, 매일 아침 8시에 에스프레소를 마신다면, 도모티카는 신선한 에스프레소를 준비해서 당신을 기쁘게 해줄 것임. 귀가가 늦어 지게 되면, 컴퓨터에 문자를 보내기만 하면 됨. 그러면, 컴퓨터가 당신이 돌아오는 시간에 맞춰서 음식을 데울 것임.
  - ▪ 이러한 복잡한 시스템은 몇 개의 단축키만으로도 움직일 것임. 고령화된 사용자는 무조건 사용하기 쉬운 제품만을 원하기 때문임.

- 인공지능 청소기와 인공지능 잔디깎이 역시 점차적으로 우리 가정에 들어오게 될 것임.

- 디지털책이 보편화될 것이고, 특별히 관심이 가는 기사를 따로 저장할 수 있음. 이로 인해 신문배달과 인쇄소는 대폭 줄어들지만, 컨텐츠 공급시장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수소에너지와 결합된 핵에너지가 석유와 가스의 대체에너지로 사용될 날이 머지 않음. 하지만, 이 대체에너지의 이면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

('06.6.28, 메가트렌드 유럽 요약 자료, 정책기획위원회)

▪ 예를 들어, 핵발전시설이 테러공격을 당하면, 이것은 세계 재앙으로 이어질 것임. 중동지역에서의 불안이 계속되어서 석유값이 계속 인상된다면 대체에너지의 실용화는 곧 현실화될 것임.

- DNA컴퓨터 발명으로 컴퓨터의 칩은 인간의 두뇌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임. 로봇은 지금보다 더 많이 실생활에서 사용될 것으로 보임.

- 나노푸드는 2049년까지 생산될 것이고 함. 유기농 식품과 같은 질이지만 싸고 쉽게 이용이 가능하다는데 장점이 있음.

  ▪ 나노푸드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기능성 식품이 소비자를 입맛을 사로잡을 것으로 보임. 음식 맛이 그대로 보존되는 음식배달 체계와 음식보호기능의 lab-on-a-chip가 곧 개발될 것으로 보임

- 유전자변형(GM)식품에 거는 기대가 큼. 비록 법적논란도 있었지만, 이미 출시된 유전자변형식품이 꽤 됨.

  ▪ 지금 당장은 소비자들이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해서 다소 비판적이지만, 유전자변형식품의 상대적인 장점이 부각된다면 사정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음. 이미 미국에서 생산되는 솜과 콩의 70%와 곡식의 35%가 유전적으로 변형되고있음.

  ▪ 이스라엘, 터키, 미국에서는 색깔 있는 솜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중임. 농업에서 두 번째 녹색혁명이 발생할 것임. 이것은 또한 농산품 가격 하락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 의료분야에서는 줄기세포공학 연구에 진척이 있을 것임. 이미 파킨슨과 알츠하이머, 하반신 불구 환자들의 새 신경세포 이식에 대한 연구발표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음. 줄기세포에 대한 연구가 성공한다면 수술분야에 획기적인 변화를 몰고 올 것임.

- 눈이나 귀에 있는 미세한 감각 기관을 미소전자기계시스템(MEMS)이 대체할 날 도 머지 않아 올 것임. MEMS으로 하반신불구 환자들에게 새 삶을 줄 날도 머지 않았을 것임.

- 일명 스마트필(smart pill)이라고 부르는 의약품이 발명되어 질병의 원인부위에만 적절한 약물농도가 유지될 수 있게 되었음.

('06.6.28, 메가트렌드 유럽 요약 자료, 정책기획위원회)

□ 기술의 발전과 테러리즘

○ 테러리스트들은 신기술이 발전할 때마다 그것을 악용할 것임. 우리의 상상에만 존재하던 그런 무시무시한 위협이 세계 도처 곳곳에 숨어있는 테러집단에 의해 현실화되고 있음. 테러리스트들은 변형된 바이러스와 같은 유전공학기술을 악용해 인구 전체에 비극적인 결말을 가져올 수 도 있음.

○ 재조합 DNA기술로 만들어낸 소위 생물무기는 특정 민족만을 공격에서 몰살시킬 수도 있고 사람들의 행동과 감정을 통제할 수도 있음.

□ 신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 생활양식의 도래

○ **분주함(Busyness)**

- 과거에 비해 인간은 잠을 덜 자고 있으며 아마도 미래에는 잠 안자고 자는 세상이 도래할 지도 모름. 인간은 깨어 있는 시간을 값지게 보내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임. 언제부턴가 인간은 시간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음. 이에 시간을 아끼려는 인간의 노력은 노동에 대한 의욕상실을 가져왔음. 과거시대 사람들과 달리, 출세나 성공하려는 욕구, 금전적인 욕구가 점차 감소하고 있음.

- 지극히 바쁜 외부세계를 피해 사람들은 집을 안식처로 삼고 재충전을 위한 여가생활도 다 집안에서 해결하게 되었음. 텔레비전, 오디오 등의 전자제품이 하나로 통합되어 많은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집안 내부에 장착될 것임.

- 하지만, 아무리 인터넷 쇼핑이 일반화되어도 직접 상점에서 쇼핑하는 습관은 쉽게 없어지지 않을 것임. 왜냐하면, 단순히 상점에서 물건을 구경하는 것 자체가 인간에게는 오락이기 때문임.

- 이와 같이 집안 내부에서 여가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 져도 여전히 오락산업은 번창할 것임. 영화관, 오페라, 뮤지컬 등의 시장은 점점 커질 것임.

('06.6.28, 메가트렌드 유럽 요약 자료, 정책기획위원회)

○ 교육, 웰빙, 건강관리

- 미래의 학생들은 단축 수업 후 노인들을 돌볼 것임. 이렇게 되면 학생들의 졸업은 늦어질 것이고, 학교 건물 안에 노인복지시설이 들어 설 수도 있을 것임.

- 바쁜 현대사회에서는 웰빙이 핵심어로 떠오름. 보통 웰빙은 물이 연상되는데, 예를 들어, 수영장, 온천, 사우나 등이 그것임.

- 노인들은 스트레스를 덜 받고 여유를 즐기면서 여생을 보내고 싶어함. 이런 사회적 요구로, 스파, 찜질방 같은 웰빙 시설이 발전할 것으로 보임. 현대인은 운동에 미쳐있음.

  ▪ 과거에 비해 적은 운동량으로 인해서 비만이 된 현대인들은 살을 빼기 위해서 운동하는 것을 일상생활의 매우 중요한 한 부분으로 여기게 되었고, 가끔 지방 제거술과 같은 의학의 힘을 빌리기도 함.

○ 첨단기술의 건강관리

- 사람들은 PDA를 통해서 혈액검사, 병력을 기록할 수 도 있게 됨. 특히 자가진단을 용이하게 해서, 굳이 의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자신의 증상에 대한 정보와 진찰을 받을 수 있다.

- 미래 의사들은 의료전문지식보다 병마와 싸우고 있거나 회복중인 또는 장애인이 된 환자들을 도와주는 데 더 주력할 것임. 이런 의미에서 환자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하게 될 것임.

- 병원이 진료절차를 좀더 세밀하게 계획한다면 진료대기시간을 줄일 수도 있고 입원수속, 수술집행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임.

- 미래병원은 규모는 작아지면서 중환자만을 장기 입원환자로 받고 나머지는 단기 입원 또는 외래환자로 돌릴 것임.

- 동유럽으로의 노인들의 이주 그리고 의료여행이 늘어나면서 북서유럽 병원들은 응급 시에만 환자가 몰리는 상황이 되었음.

('06.6.28, 메가트렌드 유럽 요약 자료, 정책기획위원회)

- 소위 원격의료의 한 맥락으로 원거리 수술도 가능해 질 것임.

- 장기이식수술이 활성화 됨으로써 장기손상 환자를 돌보는 문제가 거론되고 있음. 장기이식시술은 매우 값비싼 의료 행위이므로 물가 저렴한 동유럽병원에서 이것을 맡아 준다면 장기기증 대기자가 많은 서유럽보다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음. 동물장기 인체이식도 앞으로 전망이 밝음.

- 유럽의 병원은 항시 테러사상자와 지진과 같은 자연재앙에 대비해야 할 것임.

□ **영(靈)적인 혁명: 종교의 변화**

○ 최근 조사에 따르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갖고 있음.

- 이슬람교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교 신자가 뒤 따르고 있음. 반면에 불교 신자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음.

- 그러나 유럽에서는, 굳이 하느님을 믿기 보다는 다른 무엇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함.

- 비록 현재 유럽에서는 신도가 다 떠나 버린 교회가 많고 종교를 기반으로 성장하지 않은 젊은이가 넘칠 지라도 분명 종교는 유럽인 모두에게 필요함.

- 유럽중세시대에는 예술이 종교를 뒷받침했었으나, 오늘날 예술은 그 자체가 종교로서의 역할을 한다. 유럽인들의 가슴속에는 아직도 종교적인 가치관과 규범이 살아 있음. 심지어 신기술에 대한 유럽인 태도는 성스럽다고 까지 할 수 있음.

- 유럽에서 서서히 세력이 커진 이슬람교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무신론이 아닌 다른 종교에 의해서만 가능함.

- 유럽경제가 아시아경제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이런 배경에서 아시아에 근원을 둔 종교도 곧 유럽에 나타날 것임.

('06.6.28, 메가트렌드 유럽 요약 자료, 정책기획위원회)

□ 영(靈)적 체험

- 21세기 유럽에는 다양한 종교가 존재함. 상류층 인사들은 불교에 심취해 있고, 귀신 등 초자연적인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 졌음. 종교가 있던 없던 간에 어떤 영적인 존재와의 소통을 갈구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 영매(靈媒)나 점쟁이를 찾는 사람들도 부쩍 많아 졌음.

- 유럽인 관심은 서양의학에서 침술과 지압술과 같은 동양의학으로 옮겨 가고 있음.

- 전통적으로 유럽 문화에서는 술이, 다른 문화에서는 마약이 사회 생활의 윤활유 작용을 해왔음. 세계화로 인해서, 우리는 술과 마약이 공존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음.

- 그리스도교는 비록 다소 변질되었지만 유럽 젊은이들 사이에 부흥하고 있고, 천주교의 경우 새 교황의 선출로 다시 활기를 찾고 있음.

○ 천주교

- 오락산업이 발전된 현대사회에서는 화려한 천주교의 의상, 건물, 유리창 등이 큰 매력으로 다가 오고 있음.

- 신부들의 독신제도의 병폐와 미성년자에 대한 이상 성욕이 천주교의 이미지를 흐리고 있음. 신부 결혼을 허용하고 동성애자들을 정식으로 인정하여야만 천주교가 계속 번창할 수 있을 것임.

- 천주교를 상징하는 십자가와 목걸이가 패션업계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음.

○ 개신교

- 개신교도 수가 점차 늘고 있지만, 그들이 반드시 교회 출석을 하지는 않음. 영상 설교 덕분에 사람들은 주일마다 교회에 가지 않아도 됨.

- 21세기 유럽에서는 멀티미디어를 통해서 어느 종파나 교구에

속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가 많이 생길 것임. 그들은 과학기술 발전의 산물로 카리스마가 넘치고 진보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영향력 있는 인물들임. 이들은 목사일 수 도 있고 팝 수 또는 오프라 윈프리 같은 토크쇼 진행자일 수도 있음.

○ **개종(改宗)과 신(新) 종교 탄생**

-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종교를 버리고 다른 종교를 택하고 있음.
- 아마 인도주의도 미래에는 하나의 종교로서 존재할 가능성이 큼.
- 급속한 과학 문명의 발전을 이룬 현 세대에서는 신 종교의 탄생이 매우 잦았음. 신종교 신도의 수는 매우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거의 신과 같은 절대적 경지에 이른 정치가나 팝 가수도 이에 속할 수 있음.

□ **환경혁명과 라틴화 된 문화**

○ **이상 기후**

- 벨기에와 네덜란드는 수면아래로 가라앉고 있고 베니스의 성마르코 광장은 때때로 침수되고 있음.

○ **야외활동이 발달된 문화(Outdoor culture)**

- 전통적으로 유럽이 춥기 때문에 유럽인은 대부분의 시간을 집안에서 보냈음.
- 하지만, 북서유럽 날씨가 온난해 지면서, 노천 카페가 생기는 등 야외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것은 더운 나라에서 온 이민자들의 영향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문화의 라틴화라고 함.

○ **안전**

- 바깥활동이 잦아 짐에 따라 사람들은 각종 범죄로부터 보호 받고 싶어 함.

('06.6.28, 메가트렌드 유럽 요약 자료, 정책기획위원회)

- 만약 신변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인근 주민들과 함께 수영장, 공원 등을 옥상에 지어 여가 시간을 보낼 것임.
- 라틴화된 문화 영향으로 사람들은 전례 없이 야외활동을 즐길 것임. 이와 함께, 리키 마틴 같은 라틴계 팝 가수의 인기도 더욱더 상승세를 탈것임.

○ **잘 차려 입고 외출하기(going out=dressing up)**

- 북유럽과 남유럽의 생활양식의 구분이 모호해 지고 있음. 산책을 즐기는 남유럽 생활양식을 북유럽에서도 볼 수 있음.
- 경기침체로 음식산업은 내리막을 걷고 있지만, 화장품 산업은 전성기를 맞고 있음.

○ **자연**

-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유럽 각지에는 전에 없었던 식물이 자라고 있고, 수면상승으로 제방으로 범람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일고 있음.
- 남유럽에서는 물 부족 사태에 직면해 많은 지역이 사막화 되고 있음. 해결책으로, 물을 재활용하거나 바닷물을 증류해서 민물로 만들거나 새 운하를 건설해서 그 쪽으로 민물이 흘러가도록 하는 방법이 있음.
-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영해에는 바다 깊은 곳에 민물 웅덩이가 있다고 함. 비싼 개발비 때문에 이 민물 웅덩이는 아직 개발 전이지만 물 부족이 극에 달하면 개발될 수도 있을 것임.
- 물이 귀한 남유럽에서는 세계 최대규모 수자원 공급국인 우르과이로부터 물 수입을 할 수도 있을 것임.
- 지구 기후 변화는 주거 시설이 다양해 졌음. 이제는 시멘트 주보다 조립형 목조주택 건설이 붐을 이룸. 21세기 주택에서는 집 전체에 깔린 파이프 속에 흐르는 물이 에어컨 역할을 할 것임. 남향 방 온도를 낮추기가 어려우므로 북남향 주택이 줄어들 것이다. 거실에 사우나를 만드는 것도 가능한 일일 수도 있음.

【목차로가기】

【Megatrend 4】 전면으로 부상한 시민
(The Citizen in the Land)

□ 복지국가의 종말: 가족으로의 회귀

○ 1990년대에 유럽 특히 북유럽 국가들은 사회복지체제와 관련된 활동을 민간부문에서 공공부문으로 이전했음. 그러나 지금은 주로 재정적인 이유 때문에 복지국가를 축소하고 있음.

○ 그 결과 아시아에서처럼 가정은 보다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임. 국가가 맡았던 기능을 시민이 맡게 된 것임.

○ 부부가 서로, 그리고 자녀 및 부모를 책임지는 러시아워 가족 혹은 샌드위치 가족이 사회의 중심이 될 것임.

○ 부분적으로는 인터넷의 발달에 따라 시민들은 정치 분야에 있어서도 집단적인 의견을 형성하고 있다. 복지국가의 종말과 더불어 개인화(individualization)이 이루어지고 있음.

□ 새로운 시민 사회와 노인

○ **학교와 양로활동**

- 학생들은 공부뿐만 아니라 양로활동과 같은 지역봉사활동을 맡게 되기 때문에 졸업이 늦어져 취업도 늦어질 것임. 의학의 발전 결과를 향유할 수 있는 고소득층과 그렇지 못한 저소득층 간에 DNA 격차(Divide)를 야기시킬 것이다.

○ **노후후생 관광**

- 남부중심으로 노후후생 관광이 새로운 추세로 떠오름

○ **LHD 계획**

- 각 시민은 인생건강사망 계획(life, health, and death plan (LHD Plan))에 따라 자신의 인생을 경영할 것임. 이 계획에는 보험사가 참여할 것이며, 안락사 관련 항목이 포함될 수 있음.

('06.6.28, 메가트렌드 유럽 요약 자료, 정책기획위원회)

□ 정치의 변화

○ 좌우 구분이 아니라 신구 구분이 정치를 지배하게 됨.

○ 새로운 종류의 집단주의(collectivism)이 부상하는 한편, 엘리트의 권력은 축소되고 권력은 분산화됨.

○ 20세기에 사적인 에고(private ego)가 집단적 에고(collective ego)를 패배시켰다면 21세기는 그 반대가 될 것임

○ 한편, 시민들이 정치인들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 대중스타(political pop stars)들이 부상하고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한 연성권력이 강성권력을 대체함.

○ 사이버 네트워크가 지리적 네트워크보다 중요하게 됨. 노동 성격의 변화가 이를 뒷받침함. 조만간 1/3의 노동자들이 재택근무를 하게 됨. 매니저의 수도 10년이내에 90% 감소함.

○ 많은 직종이 사라지게 되지만 가장 안정적인 부문은 노후, 병구완 부문이 될 것이며 새로운 일자리는 주로 의료, 교육, 개인 서비스 분야에서 창출될 것임.

○ 단일 이슈 정당의 부상과 좌우 구분의 퇴색

- 기성 정당이 중요 문제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단일 이슈 정당이 급부상하고 이러한 정당은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들이 이끔.
- TV를 통해 널리 알려진 인물들이 정치에 진출하기 용이하고 정치인의 개인적인 면모가 중시됨.
- 새로운 지도자들은 좌우의 구분을 너머 이슈를 제기할 것임

○ 정치와 시민간의 간격이 좁혀짐. 사회적 논의는 세계은행의 장 프랑수아 리샤르가 말하는 범세계적이슈네트워크(global issues networks (GINs)를 통해 진행됨.

- 이 네트워크는 정부, 사기업, 사회 단체, 액션 그룹들로 구성된다.

('06.6.28, 메가트렌드 유럽 요약 자료, 정책기획위원회)

□ 새로운 청년층

○ 십대들은 그들의 부모들과도 다르지만 내부적으로도 매우 다양함.

○ 새로운 청년층은 집단주의적 성향이 있지만 소비행동에 있어서는 개인주의적임.

○ 정보혁명의 결과 젊은층은 기업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며 이들은 인터넷에 대해 보다 현실적으로 접근함.

○ 최근의 경기 침체와 9.11 테러로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 퇴색하고, 젊은이들은 서로간의 관계를 강화시켰음.

○ 21세기 초기를 사는 젊은이들은 공동체의 규범과 가치의 중시하고 문화, 종교, 전통에 보다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

○ 젊은층은 개성을 중시하며, 고유한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가족 관계를 중시함.

○ 이들은 하위문화(subculture)가 아니라 하위클럽(sub-club)에 속함.

○ 이들은 인간 관계에서 신뢰를 중시하고 미래에 대해 상대적으로 낙관적임.

○ 전세대에 비해 덜 긴장하고 있으며, 보다 온순한 이들은 그러나 소비 성향이 까다로움.

【목차로가기】

【메가트렌드 5】 안전에 대한 유럽의 새로운 시각
(The New Europena Percption of Security)

□ 테러 추세

○ 유럽에서 이스라엘화가 진행되고 있음. 향후, 이슬람주의 테러 조직은 점점 더 효과적으로 유럽에 침투할 것임.

○ 이슬람으로 개종한 유럽인들이 이러한 침투를 용이하게 하고 신구 테러조직들이 서로 협력하고 테러를 위한 정보를 얻기도 수월함.

○ 안전확보를 위해 많은 소비가 이루어지며, 프라이버시는 이제 존재하지 않음.

○ 테러 범죄에 대한 형량도 강화되어 사형제도 부활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창작 산업과 안전사업이 손을 잡고 테러에 대항할 것임.

○ 테러위협은 유럽에서 외국인 특히 이슬람교도에 대한 혐오를 낳고 있음. 유럽형 아파르트헤이트가 형성되어 무슬림과 비무슬림은 격리될 것임.

○ 반이슬람 정서는 정치적으로도 표출될 것임.

□ 테러 시나리오

○ 2004년 3월 26일 유럽연합은 대테러조정관직을 신설하고 초대 조정관에 지스 데 브리에스(Gijs de Vries)를 임명했다. 이어 유럽의 내무 및 법무 장관들은 대테러투쟁선언에 서명했음.

○ 미국의 국토안보부는 15개의 재난 시나리오를 발표했음. 이는 유럽에도 적용될 수 있는 내용임. 시나리오에 따르면 테러는 엄청난 파괴력을 지니게 될 것임.

('06.6.28, 메가트렌드 유럽 요약 자료, 정책기획위원회)

□ 울타리 공동체(gated community)와 집에만 있기(cocooning)

○ 이슬람이 확장되고 서부 유럽이 유라비아의 일부가 된다면 울타리 공동체(담으로 둘러싸인 고급주택가)는 주요 거주 양식이 될 것임.

○ 사람들, 특히 노년층은 집에서 모든 일을 처리하게 될 것이며 거리에서 걷는 것은 께름칙한 일이 될 것임.

○ 방탄복 같은 보안 제품은 슈퍼에서 살만큼 흔한 것이 될 것이고 안전상의 문제로 현금의 사용은 감소할 것임.

○ 보안회사는 성업할 것이며 경찰의 중요성은 감소할 것이고 안전 전문가들의 인기가 높아질 것이며 이들 중 일부는 정치에도 뛰어들 것임.

□ 주요 비테러 범죄의 증가

○ 21세기 유럽에서 범죄는 증가할 것임.

○ 다국적 갱의 수가 늘 것이며 이들 중 보다 많은 수가 테러범들을 지원할 것임.

○ 마약은 대체적으로 합법화될 것이고 지하경제와 지상경제가 공존하며 상호의존하게 될 것며 위조화폐도 늘어날 것임.

○ 안전에 대한 고려로 국경통제가 다시 시작될 것이고 인권보다는 안전이 중시될 것임.

○ 국가의 무능력으로 군벌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음.

【목차로가기】

【메가트렌드 6】 아르헨티나 모델에서 신유럽모델로
(From the Argentinean Model to the New European Model)

□ 유럽의 아르헨티나화?

○ 제2차 세계대전까지 아르헨티나는 세계 8대 부국이었음.

- 1950년대에 아르헨티나는 다른 농업국들의 도전에 직면했으며, 높은 인플레, 저 생산성, 수출 감소, 국가 재정 악화로 아르헨티나는 침몰했음.

- 유럽도 유사한 길을 걷게 될지 모름.

- 세계 최고의 대학 40개 중 유럽 소재 대학은 6개에 불과함. 매년 인도에 있는 대학에서 졸업하는 공대생 숫자는 10년 동안 유럽 전체의 대학이 배출하는 공대생 숫자와 같음.

□ 2005년의 리스본 아젠다 진척 상황

○ 2000년에 유럽이사회는 리스본 아젠다를 채택했음.

- 이 협정으로 모든 유럽국가는 GNP의 3%를 R&D에 투자해야 함.

○ 5년이 지난 2005년,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하고 특히 프랑스와 독일이 부진함.

○ 현재 유럽의 경제성장률은 2%인 상황하에서 2010년까지 6백만 개의 일자리와 3%의 경제성장을 이룩하려면 개혁이 필요함.

○ 현재 25세 이하 실업률은 17.9%에 달함. 25세 이상의 경우에는 7.7%임.

○ 청년층은 빈곤층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더 큼. 16-24세의 빈곤층 비율은 19%인 반면 25-64세의 빈곤층 비율은 12%임.

('06.6.28, 메가트렌드 유럽 요약 자료, 정책기획위원회)

□ 동부 유럽

○ 신유럽이 중부 유럽과 동부 유럽에서 형성되고 있음.

○ 그 기초는 유럽연합의 전신이라고도 할 수 있는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경험임.

○ 동부 유럽은 서부 유럽보다 미국 지향적이며 편향적임. 신유럽은 신미국이기도 함.

○ 비엔나는 서부 유럽과 동부 유럽을 연결하는 도시가 될 것임.

○ 동부 유럽에 진출한 미국, 독일, 영국 기업에 뒤이어 남부 유럽의 기업들도 앞으로 활발하게 동부 유럽에 진출하게 될 것임.

□ 유럽의 새로운 경제적 토대

○ 유럽이 미국과 아시아를 추월할 가능성은 전혀 없음. 그러나 유럽은 몇몇 분야에서 경제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음.

○ **관광**

- 관광산업은 이미 유럽의 주요 산업임.
- 현재 프랑스는 세계 최대의 관광지임. 미국이 3위, 스페인은 4위임.
- 매년 4억 명이 유럽연합 국가들을 방문함.
- 이들은 하나의 거대한 박물관인 유럽에서 3천억 달러를 지출함.
- BRIC 국가의 발전으로 15년내로 관광객은 7억 명으로 증가할 것임. 2020년이 되면 인도와 중국의 중산층은 유럽전체 인구와 맞먹게 된다. BRIC 출신 관광객들은 웅장한 건축물을 좋아함.
- 유럽의 뛰어난 노후후생시설은 관광객들을 유인하는 중요한 요인임.

('06.6.28, 메가트렌드 유럽 요약 자료, 정책기획위원회)

○ 지식 경제

- 지식 경제에 대한 낮은 수준의 투자가 유럽 경제의 성장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유럽연구지대(European Research Area (ERA)를 설립하여 최고의 연구자들을 유인해야 함.

- ERA가 필요한 이유는 유럽에서 연구활동이 분산되어 중복 투자도 많기 때문임.

-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초 연구, 지역내 유동성 등을 ERA가 원활하게 할 것임.

- 현재 스웨덴과 핀란드는 R&D에 3%이상을 투자하고 있음. 독일(2.5%), 덴마크(2.4%), 프랑스(2.2%), 슬로베니아(1.6%)가 뒤따르고 있음.

○ 서비스

- 유럽에서 공업의 중요성은 감소하고 서비스업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그리고 네덜란드는 세계 7대 서비스 수출국임.

- 서비스가 독일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0%임.

- 유럽연합은 세계 서비스 수출의 26%를 차지함.

- 유럽에서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 중 하나는 낮은 지역내 인적 이동임. 2000년의 경우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유럽인은 1.4%에 불과했음. (미국의 경우는 5.9%임.)

- 유럽연합내 다른 나라로 이주한 유럽인은 0.1%임. 각 국가들이 다른 나라들의 서비스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곳이 한 요인임.

('06.6.28, 메가트렌드 유럽 요약 자료, 정책기획위원회)

○ **유럽의 공업**

- 공업부문에서도 아직 희망이 있음.
- 프랑스의 에어버스는 보잉보다 크고 유럽의 건설, 화학 부문은 미국보다 큼.
- 유럽 제조업의 일부는 향후 수십년간 동부 유럽으로 이전될 것임.

○ **디자이너 패션과 가구**

- 패션과 디자인 분야에서 유럽은 예전부터 뛰어난 역량을 과시해왔음.
- 이탈리아는 이들 분야에서 미국보다 그 영향력이 큼.
- 그러나 중국의 저가 상품에 직면한 이탈리아는 패션분야에서 대중국 투자를 시작했고 가구 분야에서도 유럽은 위기를 맞고 있음. 1999년부터 가구 수입이 수출을 초과했음.

○ **음식과 포도주**

- 전통적으로 유럽은 음식의 다양성으로 유명함.
- 요리와 포도주 분야에서도 관광상품화 등 선전이 기대됨.

○ **환경 경영과 수자원 경영**

- 21세기의 예고된 기후 변화는 유럽에게 기회가 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식수의 사용, 분배, 재생 분야에서 유럽은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음.
- 중국, 인도 등으로 유럽의 앞선 환경 기술이 수출될 수 있음.

○ **노년후생 및 웰빙**

- 인구의 노년화로 병구완, 노년관광, 그리고 웰빙 분야가 급격하게 성장할 것임.

【목차로가기】

【메가트렌드 7】 유럽의 문화적 쇄신을 향하여
(Towards European Cultural Renewal)

□ 유럽문화의 변모와 강화

○ 유럽의 독특하고 오랜 문화는 계속 변화하고 있음.

○ 보다 많은 유럽인들이 자신들이 특정 국가 국민이기 이전에 유럽인이라고 느낌.

○ 세계화와 유럽화의 시대에는 확고한 정체성이 필요하고 지역화와 도시화가 유럽화를 강화하고 있기도 함.

○ 새로운 유럽은 어떤 의미에서 2000개 혹은 그 이상의 도시국가의 연합임. 그러므로 민족국가는 덜 중요해졌음

○ 유럽연합 헌법에는 신에 대한 언급이 없음, 기술혁명에 대처하기 위해 종교와 영성이 필요해졌음

○ 다양한 형태로 스칸디나비아와 서부 유럽의 재그리스도교화 (re-christianization)이 이루어지고 있음. 정치에서 종교가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지고 있음

○ 이러한 재그리스도교화는 이슬람의 부상에 대한 반작용이기도함. 하지만 서부 유럽과 남부 유럽의 상당지역은 이슬람화되어 북부 아프리카 및 터키와 더불어 유라비아를 형성할 수 있음.

- 그리하여 21세기 유럽은 그리스도교 지역과 이슬람 지역으로 양분될 가능성이 있음. 이슬람 엔클레이브도 그리스도교 지역에 형성될 것임.

('06.6.28, 메가트렌드 유럽 요약 자료, 정책기획위원회)

□ 아시아화

○ 1세기의 경제 초강대국은 미국, 일본, 브라질, 러시아, 인도, 그리고 중국이 될 것임

○ 이중 3.5개국(러시아포함)이 아시아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도는 유엔 상임이사국 지위를 요구하고 있음.

○ 서양의 부상이전에 초강대국이었던 중국과 인도 간의 축이 형성되고 있음. 인종상으로 중국인이 아닌 이민자들에게 중국 시민권 부여를 거부하는 중국의 태도가 주목됨.

○ 2003년, 일본인보다 많은 중국인들이 해외 여행을 했음. 2020만 중국인이 해외여행을 한 것임.

○ 중국의 중산층은 조만간 유럽 전체 인구와 같은 3-4억이 될 것임.

○ 아시아인 관광객의 수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미국인 관광객의 수는 유럽에서 감소 추세임.

○ 중국인 기업인의 유럽 진출도 증가할 것임.

- 2005년, 유럽연합은 미국에 이어 중국의 최대 비아시아 교역 상대였음. 유럽연합의 무역 수지 적자는 2003년에 550억 달러였다. 조만간 전세계 상품의 1/5은 중국에서 생산 될 것임.

○ 아시아와 경제적 관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유럽은 중국의 풍수 관념 등 아시아의 취향, 의견, 규범과 가치에 적응할 필요가 있음. 또한 아시아의 언어 특히 중국어를 습득할 필요가 있음.

○ 유럽과 중국의 경제 관계 설정에 유럽 내 차이나타운이 많은 역할을 할 것임.

○ 아시아에 식민지를 두었던 유럽 국가들은 그 경험이 새로운 관계 설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임

('06.6.28, 메가트렌드 유럽 요약 자료, 정책기획위원회)

○ 아시아의 도시 미관은 뛰어나지 않음. 아시아인들을 관광객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유럽의 건축물 수준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음.

- 의류 분야에서도 유럽은 아시아에 적응해야 함. 아시아인들의 체구는 유럽인들보다 작다. 이를 여러 의류 상품에 반영해야 하며, 흰색이 중국에서는 죽음을 연상시킨다는 것 등도 고려해야 한다.

○ 한편, 아시아 관광객의 증가로 아시아 음식도 유럽에서 보다 쉽게 접하게 될 것임.

○ 아시아의 영향으로 아시아인의 용모가 유럽인의 미의 기준과 관련 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 동구화

○ 체크 공화국과 폴란드 등 동구 유럽의 영향력이 증대될 것이고 동부 유럽의 고급 인력이 서부 유럽으로 진출하고 있음.

- 일부 고급 인력은 동부 유럽의 경제 발전으로 모국으로 되돌아 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동부 유럽 출신의 이스라엘인들도 이러한 추세에 동참하고 함

○ 동부 유럽은 정치적으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기도 함.

□ 이슬람화

○ 이란혁명을 예견한 버나드 루이스에 따르면 서구는 이슬람에게 패배할 것이며 무슬림들은 21세기가 지나기 전에 유럽을 지배하게 될 것임.

○ 프랑스 인구의 10%가 이미 무슬림이며 유럽에 살고 있는 무슬림들에게 근본주의가 차츰 세력을 얻고 있음.

○ 이슬람에 대한 유럽인의 호감도는 낮은 편이나 상당수 유럽인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하고 있음.

【목차로가기】

Ⅲ. 결 론

□ 21세기의 세계 패권은 미국과 아시아가 나눠 갖게 될 것임

o 21세기 6대 경제 초강대국 중 하나인 유럽연합은 관광 등의 분야에서 경제적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임

□ 유럽의 고령화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안보는 주요 이슈가 될 것이고 이슬람과의 갈등이 증폭되는 가운데 종교는 다시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임

【목차로가기】